

일본 기행문

신 상 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년
ksin2000@naver.com



이 승 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년
lwithpassion@naver.com



태풍과 독도문제로 인한 냉각된 한일관계도 우리의 일본 여행을 막을만한 변수는 되지 못하였다. 막막했던 일정을 KAMIC의 고희곤 원장님께 도움받아 우린 무작정 떠났다. 어떤 엄청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채...

첫날 만난 이세하라동물병원, 히비마리 선생님(일본수의종양인정의)의 미모와 친절함, 깔끔하고 품격있는 병원은 어리버리했던 도쿄지하철에서의 당황스러움을 잊게 해주기 충분했다. 처음에는 도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고 약간 변화한 곳과 거리가 있는 곳이라 동물병원의 규모역시 작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 널찍한 병원이 그곳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 오랜기간동안 잘 키우기 때문에 비록 도시와 떨어져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었고 종양분야에 특성화 된 병원으로써 동물진료의 수준을 한 차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했다.

두번째 찾아간 야시키동물병원, 강영철 부원장님과의 만남은 재일교포3세에 대한 동포애를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동안얼굴과 능숙한 한국어도 놀라웠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와 스텝들의 열정은 우리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충분했다. 이곳 역시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나 수의사가 0명이 각각의 맡은 진료를 나누어 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동물병원이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업무능력이었다. 그러기에 수의사와 다른 스텝간의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욱 부드러운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다음날, 시로카네다리로 달려간 우리는 이사한지 이틀된 닥타리 동물병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Genkato선생님과 한

국인 일본수의사인 민희원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일본에서 이른바 잘 갖춰진 병원내부를 구경하며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와 수의학에 대한 신념, 목표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갖었다. 소위 일본에 노른자 동네에 위치한 이 곳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답게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많은 스텝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잘 포진되어 있는 최첨단 동물병원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환자인 동물뿐 아니라 보호자들에 대한 남다른 배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의사와 간호사에게 맡겨진 환자와는 별개로 그 환자와 같이 온 보호자를 전담하는 스텝을 따로 두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위안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진정한 Human animal Bond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되었다.

약속 시간이 엄격한 일본이기에 우리는 곧바로 일본의 최고의 외과과가 계신 아카사카동물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식사시간도 아까워 길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달려간 결과 시간에 타쿠오 이시다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유창한 영어로 꼼꼼히 설명해주시는 모습, 공사중임에도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그곳의 공간활용도의 정교함과 연구소를 연상케하는 실험실 기구들을 보고 그의 열정을 다시한번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2층으로 된 이 병원은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병원이었다.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규모에 비해 스텝이 너무 많은 듯 하여 이것에 대해 질문했더니 능력있고 전문성이 높은 수의사와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 이시다 선생님께서 많은 스텝을 받으시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강연을 하며 수의학 발전에 힘을 쏟고 계신다고 했다. 책도 많이 내시면서 일본 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이시다 선생님은 늘 발전하는 수의사,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가 되길 당부 하셨다.

긴 여정으로 지쳐 있었으나 오직 수술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아이카와 동물병원의 아이카와 선생님을 만난다는 기대에 아침일찍 숙소를 나섰다. 역시나 유창한 영어에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의 선생님께서 안내한 수술방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고수의 기운을 느낄수 있었고 특화된 전문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신경외과 전문의이기에 어려운 신경질환이나 척추질환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여러 외과 관련된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위임받아 치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CT나 MRI같은 장비는 보이지 않아 질문을 했더니 전문적인 영상의학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방법을 선택에 도움이 크게 되고 있으며 일본의 많은 병원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3박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본에 수의학과 그들의 열정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우리가 본 동물병원들이 일본의 동물 병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단순히 수의사로서 질병에 치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보호자, 수의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런 것을 Human animal bond(HAB) 라고 이야기 하고,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의 올바른 유대 관계를 위해서 수의사는 상담과 올바른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임상에서 기본으로 진료의 일부분으로 HAB를 실현해가고 있었다. 수의사로서 기술, 지식, 경험을 이와 같이 튼튼한 기반 위에 쌓을 수 있다면 누구보다 멋지고 높은 탑을 세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고희곤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따뜻함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전해준 일본에 수의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